1년 동안의 나의 성장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직 대학이라는 작은 꿈을 위해 달려온 나날 끝에 저는 한경국립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경국립대에 들어가기로 한 이유는 오직 하나, 자율전공학부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에 갑작스럽게 바뀐 진로로 그저 막연히 공무원이 되고 싶었던 저는 이후 어떻게 적성에 맞게 나아갈 수 있을지, 애초에 제 적성이 무엇인지조차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설령 신설이라 해도 자율전공학부는 저에게 아주 큰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 맞이한 1학기, 모든 것이 처음이었던 저는 공무원이 아닌 명확한 진로를 찾기 위해 고민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염두에 두었던 법학 관련 전공을 바로 듣지 않고,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운 좋게도 저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선 전공 박람회를 통해 생각지도 못한 영미언어문화전공과의 복수 전공에 대하여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이라면 법학이나 행정학과 말고는 길이 없는 줄 알았던 저는 우연히 앉은 영미언어문화전공 부스에서 새로운 정보를 얻었습니다. 외교 쪽 공무원을 희망한다면 영어가 필수이니 복수전공을 고려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형태의 영미언어전공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교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수업은 수능 영어에만 익숙해져 있던 저에게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같은 날 참여한 직무 박람회에서 염두에 두고 있었던 진로 중 하나인 변호사가 레드오션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앞서 영미언어전공 부스에서 들었던 외교 공무원에 대한 정보가 더욱 현실적인 대안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저는 제 진로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율전공탐색 과제로 진행한 희망 학과 선배님 인터뷰는 법학전공이 제 적성에 맞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선배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 속에서 저는 법학이 체계적으로 얽혀있기에 법 한 분야가 아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 다양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지식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아직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는 저에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1학기는 어떤 학과로 나아갈지에 대한 선택과 다양한 고민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2학기에 들어서는 1학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흥미 있어 하는 분야를 더 깊이 생각해보고, 이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2학기에

수강한 심화전공이해 수업 및 취업박람회를 통해 제가 왜 외교 쪽에 관심이 생겼는지 다시 생각해보았고, 항공 쪽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외교 쪽으로 관심을 가진 이유 중 하나는 해외 여행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것을 즐기기 때문입니다. 취업 박람회 항공 부스에서 이런 성향을 이야기하자, 항공 분야도 국제적인 환경에서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으니 고려해보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생각해보니 항공사 지상직 역시 제 흥미와 잘 맞는 분야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또한 심화전공이해 때 들었던 행정학 수업에서 항공 쪽으로 나아간 선배님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 더욱 구체적인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항공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는 저의 새로운 진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진로가 외교와 항공 분야로 구체화되면서 저는 두 분야 모두에서 가장 중요한 영어 실력을 채우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소 친한 친구들과 학습동아리를 만들어 지금도 주기적으로 월, 수요일에 만나 토익 공부를 하며 부족한 영어 실력을 메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처음 치른 해커스 레벨 테스트에서는 67점밖에 받지 못했지만, 마지막으로 치른 테스트에서는 82점을 받았습니다. 또한 발음과 언어적 자신감, 그리고 영미권 문화를 배우기 위해 이번 동계 어학 연수도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합격하여 어학연수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법학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한경 멘티멘토 활동도 하였습니다. 사실 행정학과에서도 공무원 배출을 많이 하고 제 진로 중 하나인 항공 쪽도 배출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2학년 때 갈 학과로 법학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1학기 때 인터뷰에서 느꼈던 것처럼 법학이 다양한 분야의 기초 지식을 쌓을 수 있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취업박람회에서 항공 쪽은 행정과 법학 어디든 상관없다는 말을 들었지만, 심화전공이해 수업에서 저처럼 외교·항공 진로를 목표로 법학과 영미언어전공을 복수전공하는 선배님의 사례를 듣고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법학으로 결정은 했지만 원 전공이 법학과인 친구들이나 처음부터 법학으로 결정한 친구들보다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법학과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멘티멘토를 신청하였습니다. 제 멘토 선배님은 매우 친절하셨고, 정규 활동 시간이 아니어도 제 질문에 친절히 답변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법학전공에 대해 자세히 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모의재판이라는 수업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해당 수업은 팀원들과 사례를 정하여 만들고 그 사례로 재판까지 하는 수업으로, 단순한 활동이 아닌 책까지 만드는 수업이라고 들었습니다. 직접 현장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수업이라 생각해 내년에 꼭 듣고 싶은 수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진로 탐색과 더불어 저는 학회장을 하면서 내적으로도 크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학회장을 선택한 이유는 장학금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학회장 일을 쉽게 보았고, 그 오만한 생각이 저를 더욱 성장하게 해준 듯합니다. 1학기 때 제가 학회장이 되어 처음 맡은 일은 단합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MT를 가기로 했었는데, 지원금 문제와 너무 짧은 준비 시간으로 인해 MT를 2학기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희망 학과로 자율전공 학생들이 빠지고, 2학기 때 반수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걱정하던 차에 하기로 한 것이 단합 대회였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정말 얼렁뚱땅식의 결정과 준비였지만, 그때는 처음이기도 했고 인수인계도 없어서 조금 만만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준비와 진행이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구멍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선 준비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일정 조율에 있었습니다. 문체부 부장과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아 너무 늦게 일정이 조율되었고, 그때는 아직 감정조절이 미숙하여 싸우기도 많이 싸웠습니다. 또한 장소 문제도 있었는데,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하기로 한 계획과는 다르게 미리 예약하지 않아 조교님의 도움으로 급하게 구 체육관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학우분들이 장소를 잘못 찾아가기도 하였고, 일정이 급하게 결정되다 보니 예행 연습을 못해 프로그램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급하게 변경된 장소로 인해 취식 가능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하여 근로장학생 선배님께 실례를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첫 프로그램 개최를 끝마친 저는 더 이상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일은 학생회 일 중 가장 힘들다는 MT였습니다. 이번에는 1학기 때 실수를 만회하고 실수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장소 선정을 굉장히 신경 많이 썼습니다. 이미 반수로 인해 휴학한 친구들도 많고, 본인 희망학과에 자리 잡은 친구도 있고, 심지어는 입대를 한 친구도 있는 상황 속에서 저는 신중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조사 결과 학생들이 모일 만한 장소인 바다 쪽을 택하거나, 안전성이 높은 학교 근처를 갈지 정해야 했습니다. 조교님 그리고 학생회 회의 결과 바다로 정하되 도보로 거리가 있는 곳으로 가기로 결정하였고, 12개의 후보 중 도보로 15분 거리에 바다가 있는 어울림 펜션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종강을 하고 나서도, 심지어는 해외여행 중에서도 MT에 대해서 계속해서 회의와 논의를 한 결과 일정 및 장소, 저녁 등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MT 하루 전, 단합 때 소통 문제로 진행에서 실수가 있었던 저는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던 중 조교님과 소통의 오류로 점심이 준비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새벽 두 시에 겨우 해결하고 다음 날 MT를 인솔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학생회 측의 지도를 따르지 않은 학생들이 몇 있었지만, 그럼에도 가장 큰 사건이 한 학생의 숙취인 만큼 성공적으로 MT를 끝마쳤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는 책임감, 인솔력, 대처능력, 감정 조절 능력 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일이 틀어지면 머릿속이 새하얗게 되면서 선생님이나 가족을 의지했었는데, 학회장이 되면서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닌 가장 먼저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제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양한 준비 중 실수들을 만회하기 위해 직접 일을 하다 보니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감정 조절 능력은 1년 동안의 성장 중 가장 소중한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에 부모님께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고 조언을 받기도 하였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친구들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고등학생 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선생님께 대든 적도 있었습니다. 대학에 와서도 감정조절을 하지 못해서 단합 때 학생회 친구와 트러블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학회장을 맡으면서 감정 조절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았고, MT 때는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감정적 트러블 없이 일을 잘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감사 일을 하면서 엑셀을 다루고 영수증 첨부철을 만드는 등의 경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공적인 일에서는 단순히 이체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체 확인증이 필요하며, 영수증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1년 동안 한경국립대에서 제 진로와 적성을 찾은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 누구보다 많이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항공 쪽 진로는 정말 상상해보지 못했는데, 다양한 경험을 통해 흥미를 갖게 된 것과 학회장 경험으로 이루어진 정신적 성장을 생각한다면 19년이란 세월 동안 이루어진 성장보다 더 값진 성장이 된 것만 같습니다. 이 밖에도 학생회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서 비록 장학금이 처음에는 목적이었다 해도, 장학금보다 배는 값진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1년 전 자율전공학부 앞에 섰던 저는 두려워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불확실함 속에서 길을 찾아냈고, 실패 속에서 책임지는 법을, 갈등 속에서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막연했던 공무원이라는 꿈은 이제 외교관, 항공

공무원이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되었고, 두려움만 가득했던 학회장의 자리는 제가 가장 성장할 수 있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자율전공학부 1기로서의 불안함은 오히려 저를 더 능동적으로, 더 주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그리고 저희 자율전공학부를 언제나 지지해주시고 도움을 주신 교수님들과 새내기 지원 센터 분들께 큰 감사를 표합니다.

학습 동아리 활동 사진

MT때 사진